

풍류, 누구나 쉽게 즐긴다

완주풍류조합 '사랑방풍류' 21일부터 셋째주 토요일공연



2016년 완주풍류협동조합의 멋진 사업들이 시작된다.

완주풍류협동조합의 대표적인 축제인 '사랑방풍류'가 오는 21일 첫 공연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셋째 주 토요일까지 진행 된다.

2014년부터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토크쇼공연시리즈인 '사랑방풍류'는 관객이 주인공이 되는 풍류학교의 간판 프로그램으로, 고 품격 전통문화를 대중이 쉽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한순서 명인과 이주희 교수의 전통 춤 '모녀전승 11' 첫 공연을 시작으로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완주 풍류학교에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풍류'에 관심있는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다.

또한 6월 25일과 26일에는 세계 음악전문가들이 '천상의 음악'이라고

격한 '수제천'을 테마로 한 오케스트라 공연과 '임동창 피아노(피아노를 국악에 어울리게 개조한 악기)' 무대가 진행된다.

완주풍류협동조합은 전통문화의 핵심철학인 풍류를 젊은 감각의 문화콘텐츠로 풀어내고자 청년들이 모여 만든 풍류협동조합으로, 조합원은 2-30대 젊은이들로 구성되었으며, 청년예술가들이자 풍류 교육프로그램 감사진으로 활동 중인 청년문화협업체이다.

2015년에는 완주 각 읍면마다의 아리랑 노래를 책으로 만들어 보급하는 '완주군 13읍면 아리랑 프

로젝트'와 완주군민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장구교실과 '완주아리랑 플래시몹' 공연 등 많은 재능기부 활동을 펼쳤으며,

올해는 완주 어린이 또는 어린이 중심의 가족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 풍류교실'과 '전통문화 풍류교실' 등을 통해 전통문화 속 풍류를 노래, 춤, 놀이 등으로 쉽고 재미있게 전통문화 속 풍류를 전할 계획이다.

2016 사랑방 풍류 및 풍류학교 프로그램 문의는 풍류학교(070-4155-7475)로 하면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무주군, 우수농산물관리 기본교육

26일~6월 16일 6개 읍면서

무주군이 농민도 부자되는 무주실현을 위해 2016 우수농산물관리(GAP)기본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5월 26일 적상면을 시작으로 31일에는 안성면, 6월 2일 무풍면, 6월 9일 설천면, 6월 13일 부남면, 6월 16일에는 무주읍주민자치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무주사무소 차예지 강사가 농산물 우수관리 기준 및 우수농산물관리 인증제도에 대해, 그리고 무주군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과 이용

기 작물환경담당이 작물보호제(농약) 안전사용과 위해요소 관리계획서 작성 요령 등을 강의할 계획이다.

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이종철 인력육성 담당은 "무주군우수농산물관리(GAP)인증은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약 중금속 병원성 미생물 등 110개 항목검사서에서 안전한 농산물에만 부여되는 마크"라며 "관련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이번 교육을 통해 농산물 생산에서 판매까지 종합 관리할 수 있는 마음과 집과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토마토 수출방안 모색

찾아가는 수출현장 종합컨설팅

장수군(군수 최용득)은 토마토 수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앙관련기관과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18일 오전 10시 장수군농업기술센터에서 '찾아가는 수출현장 종합컨설팅'을 가졌다.

이번 컨설팅엔 농산물수출관련기관과 관내 농업인 40여명이 참석, 검역병해충 발생, 농약잔류 등 수출 전 과정의 애로 사항에 대해 주기적,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현장형 협업' 컨설팅이 진행됐다.

'찾아가는 수출현장 종합컨설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총괄적으로 지원하고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추진되며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 농업기술센터 등이 참여해 농산물 수출관련 공통적인 관심사항에 대한 공동 컨설팅, 관심 분야별 전문 상담이 이루어지는 개별 컨설팅, 방문요청 농가 대상 현장 진단·처방을 하는 현장컨설팅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컨설팅과 함께 현장여건 등을 감안해 간담회나 수출교육 등이 병행 실시돼 품목·지역별로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현장의 걸림돌 해소로 토마토 수출의 활로 확보가 기대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 백두대간 숲길 조성

장수군이 백두대간 숲길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백두대간 일원에 이야기가 있는 숲길을 발굴, 정비키로 하고 올해부터 2019년까지 16억을 투입, 백두대간과 주변산촌 연계 숲길을 조성한다고 18일 밝혔다.

숲길 조성대상은 무룡고개의 논개외갓집 가던 길인 민재구간과 함양정가던 길인 주촌구간을 비롯해 임진왜란 때 예군의 침입을 막은 옥실령의 대포바위에서 함비봉 구간, 산삼이 많

았던 장안산의 삼거~장안산 구간, 남덕유산의 빨치산 이야기가 남아 있는 어전~양악구간, 백두대간 한반도 동맥지리길 등이다.

군은 42km의 등산로를 정비, 안전숲길을 조성하고 전망대와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등 등산객들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안내시설을 설치하고 안전산행을 위해 구조위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야기가 있는 숲길 조성으로 사계절 힐링공간을 제공하고 6차중심의 농산촌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용담호 맑은 물 보전 '온힘'

하수도·비점오염원 저감 등 13건 국비 801억원 신청

진안군은 2017년도 하수도분야와 비점오염저감시설분야 등 총 15개 분야 801억원의 신규사업을 국가예산으로 신청하고 예산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전북도와 충남도 등 7개 시·군 150만명의 광역상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용담호의 맑고 깨끗한 수질

보전을 위해 10년간 군민자율수질관리로 수질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용담호 주변과 상류지역 197개 마을 중 83개 마을이 하수처리시설 미설치로 생활하수가 용담호로 직접 유입되어 용담호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우기철 용담호로 유입되는 지

방하천 주변의 농경지 등에서 많이 발생하는 농업 오염원이 용담호로 유입되면서 용담호 수질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2017년도 신규사업으로 환경기초시설인 하수관로와 하수처리장 설치를 위한 하수도분야 13건과 농업오염원 등 저감을 위한 비점오염 저감분야 2건 등 2019년까지 총 801억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김종문 의원 "장계 장례식장 설치"

장수군의회 본회의에서

장수군의회(의장 오재만)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06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오재만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예산안이 낭비성이나 선심성 불균형 예산은 없는지 세세히

심사하여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첫날인 1차 본회의에서 김종문 의원(사진)은 "현재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이용객이 장수읍과 북4개면 주민이고, 이전에 장계 장례식장 사업을 추진할 당시 반대 주민들에 의해 팔내 무산되기는 하였지만, 최근 장계면 장례식장에 대해 인근마을 주민들뿐만 아니라, 장계면



민들의 긍정적인 여론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으며, 행정에서의 추진 여부를 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현수막 게시대에 장례식장 설치 반대 현수막이 게첨되기도 했지만, 현재 본회의원이 파악하기에는 다수의 주민이 장례식장 설치를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긍정질문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 적상어린이집 원생 파출소 견학

무주경찰서(서장 한도연) 적상파출소(파출소장 정상인)는 최근 적상어린이집 원생들이 적상파출소를 견학했다.

적상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및 원생들이 적상파출소에 견학을 오자 적상파출소장 정상인은 이 자리에서 어린이 실종, 성폭력, 아동학대, 교통사고 예방 등 홍보와 교육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적상파출소장 경위 정상인은 적상어린이집 원생들을 상대로 실종, 유괴, 성폭력, 아동학대, 교통사고 예방 등 다양한 주제를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설명하면서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이 되도록 우리 경찰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어린이를 상대로 112순찰차 태워 주기 체험 등을 하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적상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및 원생들이 적상파출소 견학을 했다.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 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주말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진안고원 청정농산물 판매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화상담부
 063-430-2951

진안부귀 강풍피해 복구 구슬땀

진안군 부귀면(면장 이해석)은 18일 진안군청 환경산림과, 행정지원과 직원과 부귀면 직원 등 30여명은 강풍으로 피해를 본 부귀면 공회리 운장 마을에서 파손된 주택의 복구작업을 실시했다.

지난 4월 강풍으로 운장마을 안모씨(88), 김모씨(91), 배모씨(80) 등 피해 가구 대부분이 고령의 어르신들로 자력으로 피해복구가 힘든 상황이었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정을 전해들은 부귀면은 피해복구를 위해 부귀면과 종합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산림과와 행정지원과 직원들과 함께 공동 복구작업을 추진했다.

파손된 주택은 대부분 슬레이트 지붕으로 단순철거는 불가하여, 군 환경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슬레이트 철거사업'으로 지붕 슬레이트는 처리하고 나머지 건축 잔해물과 쓰레기 등은 직원들이 정리했다.

또한 헛간이 무너져 화장실이 없어진 안모 어르신에게는 안전재난과 생활민원팀에서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 불편을 해소하게 되었다. /진안=우태만 기자